

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업 실적신고 공중 세분화에 '긍정적'

# 하도급 협력업체 전문성 강화 현장 품질관리에 실효성 기대

종합건설업계가 전문건설업 실적신고 공중 세분화를 받고 있다. 하도급 협력업체들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현장 품질관리와 원가관리에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8년 전문건설업 실적평가부터 총 204개 공종에 대한 실적신고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성실적을 크게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정공사 등 4개로 분류하고, 이를 세부 내용에 따라 51개로 각각 나눈 것이다.

이에 따라 습식공사인 미장·방수·조적공사를 미장, 타일, 방수, 조적공사 등 4개로 세분화하고,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은 비계, 파일(항타), 구조물해체공사 등 3개로 분류한다.

아울러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창호, 금속구조물, 온실설치공사,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기계설비, 플랜트 기계설비, 자동제어공사, 도장공사업은 일반도장, 재(再)도장, 차선도색공사 등으로 각각 쪼갠다.

또 실내건축공사업은 일반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토공사업은 일반토공사와 발파공사, 지방관·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방관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 상·하수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뉜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일반보링·그라우팅공사와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포장공사업은 일반포장공사와 포

장유지관리공사, 조정식재공사업은 일반조정식재공사와 조정유지관리공사, 강구조물공사업은 일반강구조물공사와 인도전문 강재육교설치공사로 각각 분류한다.

이밖에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일반철강재설치공사와 교량 강구조물제작공사, 석도설치공사업은 석도설치·제거공사와 석도유지관리공사,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일반승강기설치공사와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로 나뉜 실적신고를 받는다.

이처럼 2018년 전문건설업 실적평가부터 신고 공종이 세분화됨에 따라 종합건설업계는 해당 공종에 적합한 하도급업체를 선정해 시공품질과 원가를 절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종합건설사의 위주담당자는 "그 동안 전문건설공사 실적은 25개 업종에 29개 공종으로 관리했는데 종합과 전문건설업 간 실적 연계가 미흡해 적정 하도급업체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미 업계에서는 공사 대형화로 하도급업체도 규모가 커져 품질관리와 원가 절감을 위해 29개 전문건설업종보다 많은 공종으로 나뉘 분리를 발주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지난 2003년 유사 공종을 묶었던 전문건설업 실적신고 공종을 세분화하면 특정 공종에 어느 업체가 우량한 자를 분별할 수 있다"며 "전문건설업계도 실적이 많은 공종에 대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 대표 농산물 모음전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6일부터 12일 까지 7일간 제주도 중문농협 하나로마트 및 제주축협 하나로마트 아외행사장에서 '전라북도 대표 농산물 모음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생산량 증가로 어려움에 처한 사과, 생강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배, 토마토 등 도내 5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총 5개 품목을 할인 판매하는 통합판촉행사로 진행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 중기 86% "지금 우리경제는 위기"

"컨트롤타워 가동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중소기업 현장의 체감 경기가 바닥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현 경제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의 85.7%가 위기라고 응답했다.

특히 이들 중 3분의 1 가량(28.7%)은 '금융위기·외환위기에 준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답했다.

경제 위기의 주된 이유(복수응답)로는 '소비심리 위축, 매출감소 등 내수 침체' (54.1%), '정치리더십 부재에 따른 경제 불안' (51%), '정부의 정책실효 상실' (46.3%) 등이 거론됐다.

중소기업인들은 현 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 문제를 분리한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44.7%)을 제시했다.

또 정책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조속하게 경제 컨트롤타워를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33.3%나 됐다.

중소기업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원가절감 등을 통한 내실경영' (58.3%, 복수응답), '새로운 거래처 다변화 모색' (48.3%)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의 70.7%가 트럼프 당선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복수응답)으로는 자동차(92.5%), 전기·전자(54.2%), 철강(46.2%) 등을 거론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로 중소기업의 경기전망도 두달 연속 나빠졌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12월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는 82.1로 전월 대비 4.0포인트 하락했다. SBHI는 경기를 전망한 업체의 응답 내용을 점수화한 수치다. 100보다 높으면 다음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중기중앙회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소비심리가 지속해서 악화하고 건설업종의 비수기가 도래한 점 등이 전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인재용 기자

### NH개발 사회공헌활동

NH개발과 협력업체들은 전주, 완주, 임실, 익산 관내 독거노인 및 환경이 좋지 못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노후 주택 7곳을 선정해 환경개선공사를 통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

이번 노후주택 환경개선공사는 오래된 집 내부의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작업을 통해 소외계층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이 가능토록 했다. /인재용 기자

### 전은, 바다사랑 정화 캠페인

전북은행은 지난 3일 부안군 변산면 반월마을 해변에서 신입행원과 '바다사랑 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새만금 방조제 35km 행군 및 이번 정화활동은 신입행원 29명이 참여했으며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입행원들은 부안군 직원으로부터 바다 쓰레기의 문제점을 듣고, 해안가로 밀려온 부유물과 빈병 등 생활폐기물 2톤 가량을 수거 처리하며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렸다.

강성호 신입행원은 "이번 부안 변산면 바다정소를 통해 깨끗한 해변을 보며 봉사활동의 보람과 큰 뜻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신보, 보증잔액 5000억원 돌파... 도내 경제 '활력소'

전북신보가 보증잔액 5,000억원을 돌파해 침체된 도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전북신보는 보증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진행중이며, 이 결과 재단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인 3,500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보증잔액 5,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보증공급 증가율이 매년 30%씩 신장되는 등 2년 연속 전국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 등 신용여건이 급락하는데도 오히려 혁신적 보증체질 개선과 보증자산 건전화 등을 통한 경영안정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작년 말 3.94%였던 사고율을 역대 최저치인 3.24%로 낮췄으며, 대위변제를 또한 1%대 진입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용무 이사장은 "지난 2년간 보증공급과 자산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매진해왔다"면서 "지난 2년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강력한 드라

이브를 걸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보증공급액 약 4,000억원, 보증잔액 5,700억원의 목표를 세워 침체된 도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무 이사장은 지난 2년간 책임기간 중의 핵심 사업분야에서 역대 최고의 경영성과를 나타냈고 전북도 기관평가에서도 연속 상위권으로 끌어올린 것을 인정받아 제8대 이사장으로 연임됐다. /인재용 기자

### 도내 여성기업인 7명,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서 수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가 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에서 7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보였다.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경제·사회적으로 공헌도가 높은 '여성기업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진행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태극복재 김국희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고, 티제이건설 김지혜 대표와 유비쿼터스 통신 문영실 대표가 미래과학부 장관 표창, 세진사업 김숙자 대표가 조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임실치즈 전북총판 배정은 대표오 삼성방재 유정화 대표, 크리지인 이주선 대표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인재용 기자

### 군산시 도내 중기 초청 간담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진수 기업지원본부장(상임이사)이 8일 오전 군산에서 도내 중소기업 대표 초청 간담회를 통해 금융 및 수출애로를 청취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가능성에 따른 대책과 장기적 경기침체에 대응 가능한 정책금융 및 수출 증대 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재용 기자

### 송천동 다농 엘마트, 쌀 기탁

덕진구 송천동에 위치한 (주)다농 엘마트(대표 이동호)에서는 2016년 연말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10kg 300포(6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송천동 농산물시장 내 '다농 엘마트'는 2013년부터 4년 동안 지역민을 위한 백미 300포를 후원 하고 있다.

(주)다농 이동호 대표는 "우리 엘마트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이 모두 지역 주민이시고, 이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매년 쌀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으며, 정태현 덕진구청장은 "후원자의 좋은 뜻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태 기자